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 錄 管 理 學 專 攻

강 보 배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順 愛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ecting and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Records in the National Level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 錄 管 理 學 專 攻

강 보 배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順 愛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ecting and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Records in the National Level

위 論 文 을 記 錄 管 理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 錄 管 理 學 專 攻

강 보 배

姜보배의 記錄管理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_____ (인)

審査委員_____ (인)

審査委員_____ (인)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 5
2.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 11
3. 선행연구 13

III.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 구분

1. 제1기 (1998-1999) 18
2. 제2기 (2000-2003) 19
3. 제3기 (2004-2007) 20
4. 제4기 (2008-2009) 23

IV. 역사 기록물 수집 실태 분석

1. 수집 범위와 방법 26
2.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37
3. 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42

V.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

-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DB 구축 49
- 2. 주관기관별 DB 구축 51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66
- 2.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 조정과 주요 기관 간의 연계 67
- 3. ‘자료수집보존협의회’의 강화와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정책의 수립
..... 69
- 4.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로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 70

VII. 결론 71

참고문헌 74

부록 78

ABSTRACT 82

표 목 차

<표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변천	8
<표 2>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별 흐름	17
<표 3-1>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28
<표 3-2> 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30
<표 3-3> 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31
<표 4-1>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33
<표 4-2>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35
<표 4-3>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37
<표 5>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41
<표 6-1> 국가기관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43
<표 6-2> 대학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45
<표 6-3> 단체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46
<표 7-1> 국가기관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54
<표 7-2> 대학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56
<표 7-3> 단체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58
<표 8> 역사 기록물 구축 DB명과 수록 데이터 유형	62

부 록 목 차

<부록 1>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	78
<부록 2>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8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나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서 나아가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수준 높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생산수단이 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지식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지식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창조적 지식국가건설’을 목표로 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정보화비전(Cyber Korea 21)’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¹⁾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간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1년에 마련된 ‘전략적 DB 구축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안)’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하여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집중적으로 디지털화의 대상이 될 전략적 DB 분야의 선정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공성은 높으나 상업성이 낮은 정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²⁾ 이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하는 역사분야의 기록물은 1단계 전략적 DB 구축 분야³⁾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계획 이전에도 이루어졌는

1) 정보의 생산·축적·유통·공유·활용·보존·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정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전산원. 2001. 『전략적DB 구축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 [서울]: 한국전산원, p. 34.

3) 과학기술분야(정보통신분야 포함), 교육학술분야, 문화·역사분야.

데, 1999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정보화는 이후 곧 지식정보자원 관리 계획이 진행되면서 2001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추진 내용의 평가나 수집 및 디지털화 실태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집, 디지털화, 시스템 등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었다. 이는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변동과 국가에서 배정한 예산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몇몇 기관이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중도하차하는 등 정책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적인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 및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을 크게 4기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 역사 기록물 수집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로서 이루어진 디지털화 실태를 분석하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실제 이용자들이 지식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진행될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초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학문적, 문화유산적, 보존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인 역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역사 기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해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1998~2009년까지 참여한 17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전담기관에서 출간한 보고서 및 기관별 보고서, 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관련 논문 등의 기록물을 분석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내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문헌적 분석을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은 각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의의를 살펴보고, 역사 기록물의 수집, 디지털화, 시스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넷째, 역사 기록물 관리를 각 시기별 변천과정에 따라 크게 4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역사 기록물의 수집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나누어 수집 범위와 수집 방법을 조사하였다. 수집 범위는 주제별, 시대별로 정리하였고,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교환,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을 정리하였다.

여섯째, 역사 기록물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를 조사하고, 각 DB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역사분야 DB의 통합시스템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각 주관기관별 DB로 나누어 구축 범위 및 구축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곱째, 역사 기록물의 수집과 디지털화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조사 대상 기관은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인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이 아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5개 기관⁴⁾, 호남지역 기록문화시스템 9개 기관⁵⁾,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 2개 기관⁶⁾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4) 국립중앙도서관 고전번역실, 국립문화재연구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종로도서관.
 - 5) 원광대학교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세덕각, 국립전주박물관, 남원향토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박물관.
 - 6) 국립중앙도서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

최근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이자 중요한 재화로 인식함에 따라 각각의 개별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지식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08851호) 제2조(정의)에 의하면 국가지식정보자원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기록물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록물”⁷⁾로 즉 내용적, 학문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만한 지식정보를 뜻한다.⁸⁾

이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 다양한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⁹⁾

7) 국가지식정보자원은 공공성, 학술성, 한국적 고유성이 있는 자원이다.

① 공공성이 있는 자원: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어 저장 관리되는 다부처, 다기관 공동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각종 자료와 정보로 법령, 판례, 정책문서에 관련된 자료, 국민건강 및 의학정보, 교육 관련 정보, 기초통계자료, 정책자료, 조직에서 생성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 등.

② 학술성이 있는 자원: 민간부문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이지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로 학술, 연구자료, 과학기술분야의 사실정보이다.

③ 활용성이 있는 자원: 공공성 및 활용성은 높으나 낮은 상업성 또는 관리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 또는 특정한 단일 공공기관에서 관리되기 곤란한 지식정보로 문화 예술자료, 자연자원 및 환경자료, 지리적 정보(GIS).

④ 한국적 고유성이 있는 자원: 우리나라에서만 생성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영구 관리 및 보존해야 하는 지식정보로 한국학 및 문화재, 국가적 유산, 역사, 지리, 풍속, 특산물 등에 관한 자료. (한국전산원, 2000.8.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8) 서은경, 김성혁, 오경묵. 2000.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p. 217.

9) 강민수. 2004.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p. 24.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는 국가지식정보자원 검색·이용의 기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산업 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국민의 정보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타 경제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¹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는 각 공공기관별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기관 자체의 정보자원을 개발·축적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자원관리는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식정보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라 개인 간의 지식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추진력·내용을 갖춘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해야 한다.¹¹⁾

이와 같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4월 정부는 국가정보화정책 ‘Cyber Korea 21’¹²⁾을 발표하고,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DB 구축과 활용’을 선정하였다. 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2000년 1월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 제6232호)¹³⁾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10) 한국전산원. 2002.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식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p. 34.

11) 서은경, 김성혁, 오경목. 앞의 논문, 2000. pp. 221-223.

12) 1999년 3월에 수립된 계획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정보화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을 통해 새로운 정보화에 앞서 나가려는 의지표명과 인터넷 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2004. 『국민의 정부주요정보화정책』. [서울]: 한국전산원.)

13) 1999년 11월 정보선의원 외 21인의 국회의원이 제안하였다. 제안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하였고, 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9년까지 계속되고 있다.¹⁴⁾ 현재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 등 5개 핵심 전략 분야와 그 외 산업경제, 건설기술, 해양수산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 대한 국가 지식콘텐츠가 DB로 구축되어,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기본 방향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적 보존가치와 수요자 중심의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것, 둘째 자동등록시스템 보급과 DB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성과 이용성을 촉진하는 것, 셋째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운영, 표준화 및 관련기술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수집 및 가공)·디지털화·축적·유통·활용·보존·폐기 등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각 부처별·기관별 지식정보자원관리 방안의 종합·조정을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와 효율적 국가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층 간 지식정보 격차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전개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추진체계의 변천과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여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지식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14) 한국전산원. 2005. 『2005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p. 213.

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p. 6.

<표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변천¹⁶⁾

계획 및 단계 구분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 (2000-2004)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2005-2009)	
	제1단계 (2000-2004)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	제2단계 (2005-2007)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변경	제3단계 (2008-2009년) 정부조직법 개편
관리부처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전담기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한국전산원)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담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요지식 제공기관	종합정보센터(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종합정보센터(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주요지식제공기관*(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기관	전문정보센터(분야별)	전문정보센터(분야별)	주관기관*(분야별)
위원회 및 협의회	표준화실무위원회/공동이용 실무위원회/평가실무위원회	표준화실무위원회/공동이용실무 위원회/평가실무위원회	과제별 추진협의회

<표 1>의 내용을 단계별로 종합하고 중요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별 변천을 종합하면, 1단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2000년 9월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전략적 DB 구축 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안)’이 마련됨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한국전산원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가 되고, 종합정보센터, 전문정보센터로 진행되었다.

2단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담기관인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8조에 의해, 한국전산원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된 2005년부터 볼 수 있다.¹⁷⁾ 한국전산원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전담기관)가 되어 진행한 1단계 지식정보자

1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10. 『최종연구개발 결과보고서-국가지식정보자원 표준분류체계 연구-』를 재구성함.

17) ‘한국전산원’은 1987년 개원하여, 2006년 10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984년 ‘(재)정보통신진흥센터(ITTC)’로 설립되어, 2003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특별 법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으로 개명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9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출범되었다.

원관리는 2004년에 마무리되었고, ‘제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2005-2009년)’이 수립되었다. 현재는 2004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 제7263호)에 의해서 새로이 변경된 전담기관(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주도 하에 2단계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국가지식포털의 구축과 운영, 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 설정과 적용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통합검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각 주관기관들은 해당 분야별 지식정보의 관리, 상호연계, 유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단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었다가 행정안전부 산하 사업으로 변경된 2008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장관)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주관기관이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며 수행한 과제는 각 과제별 추진협의회에서 개별 관리, 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 받도록 하였다.

위의 <표 1>에서 ‘*’로 표시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전담기관, 주요 지식제공기관, 주관기관의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¹⁸⁾ 산하의 위원회이다.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중점추진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

18) 2008년 2월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다.

확정, 예산확보 및 출연,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담기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08851호)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의하면,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지식정보자원관리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호 및 번호부여 업무의 지원,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 과제 심사 및 지원, 주관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 체결(주관기관과 공동), 과제수행관리지원, 감리시행 지원 및 결과평가·홍보,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지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관리지침 재·개정,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을 담당한다.

셋째, 주요지식제공기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각 분야별 주요지식제공기관을 살펴보면, 역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교육학술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분야는 한국문화정보센터,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건설기술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경제분야는 산업연구원, 해양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법률분야는 법제처, 특허정보검색분야는 KIPRIS(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이다.

넷째, 주관기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 주요정책 협의, 소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 추진, 소관 지식정보자원에 지정 신청,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전문기관과 공동), 과제수행 관리, 감리시행 지원 및 검사, 결과 평가,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개발시스템 인수 운영 및 확산을 담당한다.

2.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

셸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는 1956년 저술한 『현대 공공기록 평가』에서 기록의 가치를 ‘1차적 가치(primary value)’와 ‘2차적 가치(secondary value)’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차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들에게 중요하거나 유용한 가치로 업무적·행정적 가치, 법적 가치, 재정적 가치를 지닌다. 2차적 가치는 기록 생산 시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기록을 이용하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이용 가치로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¹⁹⁾ 증거적 가치로서의 보존기록들은 연구적·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그 중 문화적 가치는 세대를 이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역사가 오래된 국가일수록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역사 기록물은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범위를 포괄하며, 물리적인 형식과 성격에 관계없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개인 서류, 공기록물, 팜플렛, 예술품, 모형, 사진, 도면, 지도, 필름, 시청각자료 등으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의미한다.²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을 살펴보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록물은 고서와 고문서, 사료집이 핵심기록물들이고, 근현대의 역사 기록물은 1910년 이후의 기록물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물이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화되기 이전에 정리된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68-69.

20) 최희진. 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첫째,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록물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도서관들이 소장된 고문헌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어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여 전국에 소장된 개인 소장의 고문헌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사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세종실록기념사업회 등을 중심으로 해제, 표점, 주석, 영인, 번역, 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1910년 이후의 근현대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각 기관 및 학계와 연계하여 시대·주제·지역별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조선왕조실록, 고종시대사, 각사등록, (일제강점하)한국 36년사, 한국독립운동사 등 시대별 역사 기록물을 정리하였고, 2000년대에는 한국의 과학사, 한국의 민속공예, 불국사와 석굴암, 한국의 무용, 한국 복식의 역사 등 주제별로 역사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지역기록물의 체계화는 1984년 지방사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기 위해 지방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1987년 공포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여러 기관을 통해 수집된 지방사 기록물은 1998년 10월 한국사연구회의 주관으로, 경기·수원·강원·충청·영남·전남·제주의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정리되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사 기록물들은 국내외 한국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동양학 연구의 본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지식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기록물은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화가 매우 저조하였는데, 이는 역사 기록물의 양이 방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하는 역사분야의 기록물은 국가 차원에서 디

지털화를 진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1998년부터 1999년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국가정보화정책 Cyber Korea 21에 의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에 있어서 전략적 5대 핵심 분야로 선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였다. 고문헌 및 목판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원문 기록물의 이미지화 및 디지털화를 실시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의 역사 기록물 통합 검색 서비스는 학술 연구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타 각종 사회 교육기관에서 교육 기록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해외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여 한국학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21세기 국가 역량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역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 교양 정보의 서비스로 이용자층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이용자들이 역사 기록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 목록, 연표, 사진기록물 등 도움이 되는 보조 기록물을 구축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역사 기록물의 수집에 관련된 연구, 디지털화와 관련된 연구,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역사 기록물의 수집과 관련된 연구로는 윤소영, 정지연, 장윤희,

최희진, 김미향의 연구가 있다.

윤소영(2009)²¹⁾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관리 업무를 조사하고, 수집자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팀, 사료관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수집자료 관리시스템인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정리 인력의 전문화와 사서의 수집사료에 대한 이해, 연구직의 적극적인 참여, 기록물의 공유와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지연(2007)²²⁾은 근현대 기록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성문화한다는 것과 필수 요소를 통해 기관의 사명과 목적에 맞는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법적 권한의 확보, 기록물 유형에 맞는 수집 방법의 고안 등을 제시하였다.

장윤희(2005)²³⁾는 한신대학교의 역사 기록물 수집 분야 및 범주를 시간적·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신대학교 역사 기록물 수집정책 구성요소,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수집 분야와 우선순위의 설정, 기록물 수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최희진(2005)²⁴⁾은 지방의 역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물 관리기관 각각의 수집정책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외국의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집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미향(2004)²⁵⁾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지방 역사 기록물 기초조사 실태와 외국의 지방 역사 기록물 수집현황

21) 윤소영. 2009. 수집자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1): 371-387.

22) 정지연. 2007. 근현대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8: 91-121.

23)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24) 최희진. 앞의 논문, 2005.

25) 김미향. 2004. 『지방 역사 자료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방 역사 기록물 수집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집 주체의 정립, 수집 정책의 수립 및 수집 방법론 확립, 기관 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둘째,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연구로 강순애, 안상민의 연구가 있다.

강순애(2008)²⁶⁾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역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집정책을 분석하였다. 세 기관 사이의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지역사료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각 기관과 연대하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안상민(2007)²⁷⁾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고문서 디지털화 현황, 인터페이스, 분류, 인터넷을 통한 웹 접근성 등의 디지털화된 고문서의 정보서비스의 행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록물 특성에 맞는 기술요소 제공, 고문서 분류체계의 개선, 고문서 이미지뷰어와 웹의 표준화, 디지털화된 고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이미지 표준화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역사 기록물의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로는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오경주, 정원식의 연구와 이견식, 이남희의 연구가 있다.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오경주, 정원식(2006)²⁸⁾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와 전자기록관리에 대해 정의하고,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보자원 통

26) 강순애. 2008.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활용-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39-60.

27) 안상민. 2007. 『고문서 웹서비스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28)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오경주, 정원식. 2006.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01-333.

합관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기반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건식(2006)²⁹⁾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위해, 정보검색과 검색결과 제시의 두 측면에서 12개의 역사분야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채택한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남희(2003)³⁰⁾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와 지식정보자원표준화 실무위원회를 소개하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여기관과 구축 자료량을 밝히고 있다.



29) 이건식. 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35-352.

30) 이남희. 2003. 인문학과 지식정보화: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움』, 19-27.

Ⅲ.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 구분

이 장에서는 1998년에서 2009년까지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이루어진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참여기관 및 진행 업무,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 및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1998-1999)는 역사 기록물 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이고, 제2기(2000-2003)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요 지식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시기이며, 제3기(2004-2007)는 전문정보센터협의회가 구성되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화된 시기이고, 제4기(2008-2009)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축소된 시기이다.

이를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별 흐름³¹⁾

	시기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총계
	주관기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	한국학중앙연구원	v	v		v	v	v	v	v	v	v	v	v	11
	국사편찬위원회		v		v	v	v	v	v	v	v	v	v	10
	한국고전번역원		v		v	v	v	v	v	v	v	v	v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			v	v					3
	독립기념관					v				v				2
	국가보훈처							v	v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v			1
소 계		1	3	0	4	4	3	5	5	4	4	3	3	39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v	v	v	v	v	v			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v	v	v				3
	경상대학교 문천각							v	v					2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2
	전북대학교 박물관									v	v			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v				1
	순천대학교 박물관										v			1
소 계		0	1	0	1	1	1	3	4	5	3	0	0	19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v	v		v		v	v	v	v	v	v	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v	v					2
	전쟁기념관							v						1
소 계		0	1	1	0	1	0	3	2	1	1	1	1	12
총 계		1	5	1	5	6	4	11	11	10	8	4	4	70

1. 제1기 (1998-1999)

제1기는 역사분야 정보화가 진행된 시기로, 1998년에서 1999년까지이다.

참여한 국가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이며, 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이 시기의 연차별 진행 업무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서 ‘한국학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
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
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³²⁾, 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문

3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장기발전방안』과 국가지식
포털의 ‘지식 DB 소개’를 재구성하였다.

32) 1999년에는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DB구축, 한국학고전원문정보DB구축, 장서각소장고전적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화 종합정보DB'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정보화가 시작되어 주관기관 선정, 중복사업 조정, 표준화 사업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2. 제2기 (2000-2003)

제2기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요지식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시기이다.

국가는 2000년 1월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어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기존에 이루어졌던 역사분야 정보화 사업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전략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한국학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자원의 지식 정보화, 한국 역사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학술연구 및 교육의 발전, 국민 실생활과 한국 역사 문화정보의 밀접한 접목, 한국 역사 정보의 전 세계적 보급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2000년 12월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고, 2001년 3월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면서 역사분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본격화되었다.³³⁾

이 시기에 참여한 국가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립기념관이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며, 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연차별로 진행된 사업을 개관하여 보면, 2000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유교문화종합 DB’를 2차로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선정되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³⁴⁾과

33) 한국전산원. 2001.11.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 [서울]: 한국전산원. pp. 137-143.

34) 2001년에는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DB구축, 장서각소장고전적전산화를 진행하였다.

한국학교전원문정보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과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 한국학교전원문정보 DB, 장서각소장고전적전산화, 유교문화종합정보 DB를 구축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 한국학교전원문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 디지털화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 한국학교전원문정보 DB, 장서각소장고전적전산화는 1999년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포함되었다가 제2기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새로 주관기관이 추가되어 추진된 업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과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의 2개에 불과하다.

셋째, 그 외에는 기존에 전개되던 업무의 추가 작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법제나 예산 면에서의 지원이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제3기 (2004-2007)

제3기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로,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노력으로 센터 운영과 기술 표준화, 연계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주관기관이 참여한 시기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경상대학교 문천각,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이 참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전문정보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³⁵⁾ 협의회 내에 전문정보센터를 두었는데, 2004년에 12개 기관³⁶⁾, 2005년에 14개 기관³⁷⁾, 2006년에 19개 기관³⁸⁾, 2007년에 20개 기관³⁹⁾이었다. 이 기관 중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속한 기관도 있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에만 참여한 기관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전문정보센터는 2004년 네 번의 연계협의회, 2005년 한 번의 워크숍 및 협의회, 2006년 두 번의 협의회, 2007년 한 번의 워크숍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기록물을 DB화 하였고, 통합메타데이터, 통합디렉토리, DB 구축 공정 등의 한국 역사 기록물 DB 표준화(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적기록물 검색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신출 한자 정리 및 유니코드 컨소시엄 제출, 연계 기관의 기존 구축 DB 목록 작성⁴⁰⁾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연차별로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 민주화운동사료 DB, 한민족전쟁사 관련자료 디지털화 사업, 독립운동 관련 기록

35) 국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역사분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워크숍』.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 2.

36)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37)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38)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39)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종로도서관,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40) 국사편찬위원회. 2005.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소개』.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 5.

물, 유교문화종합정보 DB, 한국경학자료 DB, 남명학 관련 고문헌 원문 DB를 구축하였다. 주관기관은 11개 기관으로, 2003년에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⁴¹⁾, 장서각소장 국학자료 전산화작업, 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 유교문화종합정보,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한국학고전원문 디지털화, 지식정보기반 유교문화권 체험관광서비스, 경상대학교 도서관 및 남명학연구소 소장 남명학 관련 고문헌, 한국경학자료 DB, 한국 관련 서양고서 원문 DB, 민주화운동사료 DB,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학 고전원문정보,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 불교문화종합 DB, 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 및 역사체험 콘텐츠, 장서각소장 국학자료, 한국경학자료 및 족보 DB, 한국 관련 서양고서 원문 DB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고문서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 한국학고전원문정보 디지털화, 장서각소장 국학자료,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 및 역사체험 콘텐츠, 조선총독부관보 DB 고도화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호남지역 고문서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 디지털화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기는 제2기에 비해 주관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문정보센터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3기에는 본격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가 진행되었으나, 국가기관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과 단체들은 1~2년 정도의 단기적 참여에 그쳤고, 특히 대학은 10여 개의 핵심대학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의 참여가 미진했던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도한 ‘역사 기록물 정보화사업’에 핵심그룹인 14개 대학⁴²⁾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식정보

41)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구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중앙연구원(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주관기관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기관이 되어 구축하였다.

자원관리의 역사분야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제4기 (2008-2009)

제4기는 주관기관의 수가 줄어든 2008년부터 2009년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주관기관의 수는 200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4개 기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2007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 업무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7년에 예산이 300억 규모로 축소되어 DB 구축보다는 ‘활용도’를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고, DB 구축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침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참여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고, 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연차별 진행 내용은 2008년에 고전번역총서, 장서각 소장 인물자료 DB,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및 유적·유물 DB, 비변사등록 DB, 한국고대사료집성 DB가 구축되었고, 2009년에 비변사등록 DB, 고전번역총서, 장서각 소장 인물자료 DB,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및 유적·유물 DB가 구축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기는 제3기에 비해 주관기관의 수가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예산의 감소 등이 주원인이었다.

둘째, 제4기는 디지털화 사업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이지만, 장서각 소장 인물자료를 DB로 구축하는 등 세부적인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시기 구분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
- 42) 역사 자료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19개 대학 중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주관기관 5개 대학을 제외한 14개 대학이다.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 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도서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과 같다.

첫째, 제1기(1998-1999)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둘째, 제2기(2000-2003)는 지식정보자원관리가 시작된 시기로, 기존에 전개되던 디지털화의 추가 작업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제정이나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이 시기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과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 2개에 불과하다.

셋째, 제3기(2004-2007)는 지식정보자원관리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 가장 많은 주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역사 자료 DB 표준화(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 기록물 정보화사업’(2004-2008)에 14개 대학이 참여하면서, 핵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의 참여가 부진했던 시기이다.

넷째, 제4기(2008-2009)는 업무의 규모와 참여한 주관기관의 수가 감소한 시기로, 예산 규모의 축소로 인해 ‘활용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DB 구축을 진행한 시기이다.

위와 같이 199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국가 차원의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기록물 정보화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연계과정에서 기존 정보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미흡한 상태로 디지털화가 지속되었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화가 2000년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 포함되어 진행되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정의 및 범주를 설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4개 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다가, 2004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 주관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

라 2004~2007년까지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셋째,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화되었던 2004~2007년 사이에 국가기관의 주관기관 참여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중요한 역사 기록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단기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배제된 것은 국가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대학 중 7개의 대학만이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배제되었다. 역사 기록물 정보화에 참여한 14개의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아, 주요 대학의 역사분야 핵심 기록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축의 사업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업무로 이관되고 예산도 축소되었다. 또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1차 마무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3개의 국가 기관과 1개의 단체만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대학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IV. 역사 기록물 수집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주관기관을 국가기관·대학·단체로 나누어, 각 주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 방법, 보유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수집 현황 및 대표적인 역사 기록물군을 파악하여 역사 기록물의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7개 기관이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경상대학교 문천각,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순천대학교 박물관의 7개 기관이며, 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의 3개 기관이다.

1. 수집 범위와 방법

역사 기록물의 수집 범위는 수집 기록물의 주제와 시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주제는 한국사, 문집 및 역사, 왕실 및 지역사, 여성사, 인물, 독립운동사, 식민지시대사, 유학 등으로 나누었으며, 시대는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로 분류하였다. 수집 방법은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수집 범위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주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기록물의 주제는 한국사, 문집 및 역사(번역), 왕실 및 지역사, 여성사, 인물(국가유공자), 독립운동사, 식민지 시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한국사 전반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이는 한국고대자료, 각종 고서, 고문서, 해외기록물, 각 지방자치단체·학교·사찰·향교·서원·문중·개인 소장 기록물 등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시대의 한국문집과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여 번역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장서각 소장자료, 신한동사 경성지부 관련자료, 귀환자료, 대한제국기 의병전쟁 관련자료, 동학농민전쟁자료, 민주화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한국 여성의 변천사와 관련된 도서, 해방 후 현재까지의 북한 여성의 지위, 한국여성의 생활, 여성정책, 여성변천사, 여성인물, 여성정책사, 여성 단체 활동사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관련 기록물, 독립운동사, 해외 한국독립운동사, 의병에 관한 기록물 등을 수집하였으며,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관련 기록물,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등을 위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	○	○	○
	한국고전번역원	문집 및 역사(번역)			○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 및 지역사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사	○	○	○	○	○
	국가보훈처	인물(국가유공자)				○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식민지시대사				○	○
계			2	2	4	7	5

이와 같이 수집된 국가기관의 기록물들을 주제 및 시대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한국사 전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사를 중심으로 전시기에 걸쳐 고루 수집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시대의 문집 및 역사분야의 수집 기록물과 그 기록물을 번역한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 및 지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기록물들을 수집하였으며,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의 인물(국가유공자), 독립운동사, 식민지시대에 관한 기록물들을 수집하였다.

둘째, 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 조선 4개, 일제강점기 7개, 근현대 7개로 국가기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 기록물을 많이 수집하였다.

(2) 대학

대학은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기록물의 주제는 왕실, 유학, 남명학, 한국학(외국어), 호남 지역사, 불교이다.

이를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규장각 소장기록물을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왕실문서 등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집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은 고대 및 삼국부터 조선시대의 한국경학(『書經』, 『詩經』, 『易經』, 『論語』 등 34권의 책)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조선시대의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南冥 曹植(1051~1572)의 사상과 경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진흥시키고자 경남 지역 여러 문중에서 기증한 고서, 경남 지역 유형문화재 등을 수집하였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수집하였고,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전북 지역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조선시대의 불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전남 지역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			v	v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유학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학(외국어)			v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v	v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v	v	
계			2	2	7	4	1

<표 3-2>의 7개 대학이 수집한 역사 기록물들의 주제 및 시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왕실 중심의 기록물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경상대학교 문천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유학, 남명학, 불교의 주제를 특성화하여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는 외국어로 쓰인 한국 관련 서적을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수집하였으며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호남 지역사를 주제로 하여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수집하였다.

둘째, 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 조선 7개, 일제강점기 4개, 근현대 1개로 대학에서는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주로 수집하였다.

(3)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의 3개 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	v	v	v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v
	전쟁기념관	전쟁사	v	v	v	v	v
계			2	2	2	2	2

<표 3-3>을 통해 단체가 수집한 역사 기록물들의 주제와 시대별 수집 범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국학진흥원은 고대 및 삼국부터 일제강점기의 민간소장 국학 자료, 영남사림문집 등을 수집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48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였으며, 전쟁기념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 전시기에 걸쳐 전쟁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둘째, 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 조선 2개, 일제강점기 2개, 근현대 2개로, 단체에서는 전시기에 고루 거쳐 기록물을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수집 방법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교환, 기타로 구분하였다.

구입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구입의 형태는 원본과 영인으로 나누었는데, 마이크로자료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한 경우는 영인으로 분류하였다. 기증은 기록에 대한 법적·물리적 권리를 보상받지 않고 이전하는 것⁴³⁾이며, 기탁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역사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다. 교환은 기관 간에 기록물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이 외의 수집 방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교환, 기타 등의 방법으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지를 방문하여 수집하거나, 지방자료 조사위원이나 연구자에게 수집지원비를 지원하여 기록물을 구입하였다. 또한 한국사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거나 기록물을 교환하기도 하며, 증언 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현재까지 명문화된 수집정책은 없으며, 사업이 진행 될 때마다 수집사업 방침 등을 작성하여 수집하고 있다.⁴⁴⁾

한국고전번역원은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등의 기록물을 기증과 영인하는 것을 통해 수집하여 번역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역사 기록물을 마이크로자료 형태로 촬영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고, 자료수집가나 문중의 기록물(전주 유씨, 반남 박씨, 광주 안씨)을 기증·기탁 받아 수집하기도 하였다. 연구원 내에 별도의 수집정책은 없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기반을 두고 각 사업에 따라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관련 기록물을 구입 및 기증을 통해 수집하였고,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자 포상을 위해 유공자에 대한 기록물을 수

43)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p. 67.

44) 최희진. 앞의 논문, 2005. p. 59.

집하는데, 구입(영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정규 직원 이외에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따로 운영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⁴⁵⁾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사, 민족운동사, 국난극복사 관련 기록물을 구입(원본, 영인)의 방법으로 수집하였고⁴⁶⁾,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하였다.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v	v		v (이관)	v	증언채록
	한국고전번역원		v	v			
	한국학중앙연구원		v	v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		v			
	국가보훈처	v	v				
	독립기념관	v	v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v				
계		4	6	3	2	1	1

<표 4-1>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기관의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 중 일관된 수집정책에 의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은 없었고,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집계획을 세워 기록물의

45) 조혜경. 2007.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 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 컬렉션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p. 18.

46) 조혜경. 위의 논문, 2007. p. 18.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4개 기관, 구입(영인) 6개 기관, 기증 3개 기관, 기탁 2개 기관, 교환 및 기타 1개 기관이었다. 구입(원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에서 실시하였고, 구입(영인)은 국내외에 흩어진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자료조사위원, 연구원, 자료조사분석단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수집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증·기탁 방법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지방에 흩어진 문중기록물을 마이크로자료로 촬영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을 기증·기탁하도록 유도하여, 장기기탁 방식으로 많이 수집될 수 있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기증·기탁 방식 외에 각 기관에 흩어진 문집 및 지방사 기록물을 영인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2) 대학

대학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기타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왕실 및 정부 문서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구입한 고문서는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통치의 일환으로 수집한 기록물이 이관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국학·동양학 연구자료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구입(원본, 영인)을 통해 경서류, 국문학 관계 자료, 유학자료, 성균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省軒 李炳憲, 重齋 金樸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적 자료를 기증받아 수집하기도 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경남 지역에 산재한 개인 및 문중 소장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기증 및 구입(영인)하면서 수집하였고,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국 관련 문헌들을 구입(원본, 영인)하였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수들의 노력으로 고문서를 수집하였는데, 문화재지표조사, 동산문화재조사, 유물조사 등의 조사로 발굴된 전라북도 지역 고문서 등 역사 기록물을 구입(영인), 기증, 기탁의 형태로 수집하였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구입(원본, 영인) 및 기증을 통해 수집한 불교 관련 기록물이 10만여 권인데, 국보·보물급의 귀중본을 비롯한 고서를 수집하였고, 개인 소장자에게 기증받은 기록물은 전촌 문고, 석상 문고를 형성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구입(영인) 및 기증, 기탁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이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v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v	v	v		문화재 지표조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v	v	v		
계		4	6	5	3	0	1

<표 4-2>의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특화하여 수집하였는데,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기타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구입(원본) 4개 기관, 구입(영인) 6개 기관, 기증 5개 기관, 기탁 3개 기관이

며, 기타의 방법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한 발굴 기록물 수집이 있었다.

둘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90% 이상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이관 받았고, 일부 기록물은 구입에 의존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록물까지 폭넓게 많은 기록물을 구입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각 지역에 속한 기록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고, 기증·기탁을 유도하여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 단체

단체는 주로 기증, 기탁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영남 지방의 서원, 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유교 관련 국학자료를 구입(영인), 기증, 기탁을 통해 수집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사료, 박물관사료, 시청각기록물 등을 구입(영인) 및 기증,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전쟁기념관은 전쟁 관련 기록물을 기증,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v	v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v	v	v		
	전쟁기념관	v		v	v		
계		1	2	3	3	0	0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는 주로 기증,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1개 기관, 구입(영인) 2개 기관, 기증 및 기탁이 3개 기관이었다. 전쟁기념관은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쟁사 관련 기록물을 구입하였고,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국학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미공개 기록물을 조사·발굴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기록물을 영인하기도 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세 기관은 모두 위탁관리방식과 기증제도를 통해 많은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2.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은 각 기관 역사 기록물을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신문, 책판, 서화, 박물 등의 형태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별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서 20,812책, 고문서 48,930점, 도서 197,737권, 시청각기록물 21,741건, 마이크로필름 30,571롤, 귀중자료 197책 등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서 1,126종 945책, 도서 1,018종 21책을 소장하고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서 513,305책, 고문서 648,253점, 시청각기록물 288건, 마이크로필름 13,640롤, 박물 602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도서 39,780권, 시청각기록물 246건을 소장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고서 137책, 고문서 15,235점, 신문 2,013건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은 고서 25,030책, 고문서 30,482점, 시청각기록물 14,302건, 서화 512점, 박물 15,048개를 보유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고문서 1,947점, 도서 6,869권, 시청각기록물 83건, 마이크로필름 421롤, 신문 631권을 소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자료 보유현황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은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신문, 서화, 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서는 5개 기관, 고문서는 5개 기관, 도서는 4개 기관, 시청각기록물은 5개 기관, 마이크로자료는 3개 기관, 신문은 2개 기관, 서화는 1개 기관, 박물은 2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둘째, 국사편찬위원회는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고루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고서, 고문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박물 등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소장하였다. 독립기념관은 고서, 고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전시를 위해 시청각기록물, 박물, 서화 등의 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양의 신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은 수집한 고서를 바탕으로 색인, 해제 등을 발간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국가기관은 고서, 고문서, 도서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록물도 고르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대학

대학의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서 174,834책, 고문서 50,690점, 책판 17,821장, 박물 307,654개를 소장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한적 7만여 책,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서적 및 일반자료 7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고문서 22,000점, 양장 영인본 도서 20,000권, 책판 1,425장, 박물 20,005개를,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고서 10,616책을 소장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 18,182점, 서화 2,050점, 박물 9,348개를 보유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서 30,000책, 도서 908,732권을 소장하였으며,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 696점, 서화 5,925, 박물 2,20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자료 보유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고서, 고문서, 도서, 책판, 서화, 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서는 4개 기관, 고문서는 4개 기관, 도서는 3개 기관, 책판은 2개 기관, 서화는 2개 기관, 박물은 4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둘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서, 고문서, 책판, 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궤’ 등 다양한 박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서와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국내 최대 불교 자료 소장처이기도 하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고문서, 도서, 박물 등을 비슷한 비율로 보유하고,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수집기록물 중 박물의 비중이 높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서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대학은 고서, 고문서, 도서와 서화, 박물을 주로 소장하였는데, 서화, 박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박물관의 영향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도 탁월하게 많은 양이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많은 양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

3) 단체

단체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은 고문서 83,299책, 고문서 120,228점, 책판 56,729장, 서화 1,399점, 박물 1,990개를 수집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도서 530,000권, 시청각기록물 160,000건, 박물 10,0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은 박물 9,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단체의 보유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는 고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책판, 서화, 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서는 1개 기관, 고문서는 1개 기관, 도서는 1개 기관, 책판은 1개 기관, 서화는 1개 기관, 박물은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둘째, 한국국학진흥원은 고문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량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서, 서화, 박물도 소장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근현대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때문에 사진, 영상 등의 다른 기관에 비해 뛰어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의 소장 기록물은 박물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셋째, 단체에서는 모두 박물을 수집하였고, 한국국학진흥원에는 다량의 책판을 보유한 것이 특징적이다.

국가기관·대학·단체별 역사 기록물 보유현황을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국가기관							대학							단체			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서울대	성균관대	경상대	명지대	전북대	동국대	순천대	한국국학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고서	20,812	1,126종 945책	513,305	.	132	25,030	.	174,834	70,000	.	10,616	.	30,000	.	83,299	.	.	928,973
고문서	48,930	.	648,253	.	15,235	30,482	1,947	50,690	.	22,000	.	18,182	.	696	120,228	.	.	956,643
도서	197,737	1,018종 21책	.	39,780	.	.	6,869	.	70,000	20,000	.	.	908,732	.	.	530,000	.	1,773,139
시청각기록물	21,741	.	288	246	.	14,302	83	.	.	.	.	.	.	.	.	160,000	.	196,660
마이크로자료	30,571	.	13,640	.	.	.	421	.	.	.	.	.	.	.	.	.	.	44,632
신문	.	.	.	.	2,013	.	631	.	.	.	.	.	.	.	.	.	.	2,644
책판	.	.	.	.	.	.	.	17,821	.	1,452	.	.	.	.	56,729	.	.	76,002
서화	.	.	.	.	.	512	.	.	.	.	.	2,050	.	5,925	1,399	.	.	9,886
박물관	.	.	602	.	.	15,048	.	307,654	.	20,005	.	9,348	.	2,208	1,750	10,000	9,000	375,615
계	319,791	2,144종 966책	1,176,088	40,026	17,380	85,374	9,951	550,999	140,000	63,457	10,616	29,580	938,732	8,829	263,405	700,000	9,000	

위의 <표 5>의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며, 대학 중에서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보유 현황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기록의 형태는 도서이고, 가장 적은 양의 기록물은 신문이다.

셋째, 고서와 고문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시청각기록물과 마이크로자료, 신문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책판과 서화는 대학과 단체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고, 박물은 일부 국가기관 및 대학과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이 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군을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기관

각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기록물군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각 시대별 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대표 기록물군은 중국 문헌 중 한국 고대사 부분을 발췌한 고대사 기록물, 비변사등록·중추원 조사자료·각사등록 등 조선시대 기록물, 국내외 항일문서·통감부 문서 등과 같은 일제강점기기록물, 휴전회담 회의록·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등 근현대기록물 등이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국역총서, 국역조선왕조실록 등 ‘국역자료’와 한국 문집총간 등 ‘문집’이 기록물군을 이루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집 기록물

군은 왕실소장, 문중소장 문서 등인데, 이를 분석하여보면 왕실소장문서는 궁중의례류·오군영 관계기록물 등이고, 전국 문중에서 수집한 고문서는 재산상속문서·계약문서 등이며 민요 및 설화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직접 음성 채록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법, 정치, 교육, 노동, 통계, 가족, 보건, 복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여성 문제와 관련된 기록물군을 구성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통치 기록물인 수형인명부, 재소자 신분카드,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 등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시대의 선언서, 격문, 3·1운동 관련 기록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기록물, 미주홍사단 문건 등 독립운동사 관련기록물을 주로 수집하였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관련 기록물이 기관의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표 6-1> 국가기관의 대표적 기록물군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고대사(중국 문헌 발췌 기록물), 조선시대사(역사 기록물), 일제강점기(독립운동 및 친일 관련), 근현대(근대정치, 신문, 사료총서)
	한국고전번역원	문집 및 역사(번역)	조선	국역(역사 기록물), 문집(한국문집총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 및 지역사	조선~근현대	장서각 소장(궁중 문화, 역사 기록물), 문중 소장(제정 관련), 음성채록(민요, 설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여성(법, 정치, 교육, 노동 등) 기록물
	국가보훈처	인물 (국가유공자)	일제강점기~근현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및 일제 통치 관련)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식민지시대사	일제강점기~근현대	친일파(역사 기록물)

국가기관 대표적 기록물군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조선·일제강점기·근현대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고, 한국고전번역원은 국역, 문집을 기록물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소장문서·문중소장문서가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록물군은 여성 정책사 등 여성 관련 기록물이고, 국가보훈처의 기록물군은 수형인명부,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등 일제강점기 기록물이며,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선언서, 격문 등이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과 관련 기록물군을 형성하였다.

2)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下膳狀, 五功臣會盟錄, 備忘記 등의 국왕문서, 令旨, 令書, 圖署牌旨 등의 왕실문서, 上疏草, 啓文, 啓本 등의 관부문서, 土地賣買文記, 土地賣買文記 牌旨, 土地賣買文記 考音 등의 사인문서 등의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四書(『論語』, 『孟子』, 『大學』, 『中庸』), 五經(『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 등 경학, 동아시아학과 관련된 기록물을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기록물군은 남명학과 관련된 것으로, 학기유편·년보·문인록·덕천서원 관련 기록 등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 산해사우연원록·덕천서원원생록·산해연원록·덕천사우연원록 등 남명 조식과 교류한 인물의 고문헌, 경상우도 지역의 문집류·기록류·고문서류·책판류 등이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의 수집 활동을 통해 해외(지역)에 있는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등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전라북도 지역 호남학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형성하였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불교를 주제로 관련 역사 기록물이 대표적이다.

대학별 대표적 기록물군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표 6-2>와 같다.

<표 6-2> 대학의 대표 기록물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	조선~일제강점기	규장각 소장(왕실, 국왕, 관부, 사인문서), 고지도, 국보, 보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유학	고대 및 삼국~조선	경학, 동아시아학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	조선	남명학 (인물 관련, 경상우도지역 기록물)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학(외국어)	조선~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서양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조선~일제강점기	호남 지역 기록물(역사 기록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	고대 및 삼국~조선	불교(한국불교전서, 한글대장경)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조선~일제강점기	호남 지역 기록물(역사 기록물)

대학의 대표적 기록물군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왕·관부·사인문서 등을 기록물군으로 형성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경학, 동아시아학 관련 기록물을 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덕천서원 관련 기록·경상우도 문집류 등 남명학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덴마크어,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표 기록물군으로 볼 수 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호남 지역 관련 기록물을 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한글대장경 등 불교 관련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3) 단체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국학자료와 관련된 기록물군을 형성하는데,

영남사림문집, 문집상세해제, 영남사림일기, 도산서원 고문서, 명문가 고문서가 이에 해당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60년대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 등, 1970년대 유신반대투쟁, 민청학련·인혁당사건 등, 1980년대 5월 광주항쟁, 민주화 대투쟁(6월항쟁) 등 사회 각 부문별로 활발하게 전개된 노동운동·농민운동·도시빈민운동·인권운동·학생운동, 지역활동 등과 관련된 기록물군을 형성하며, 전쟁기념관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전쟁에 관한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 단체의 대표적 기록물군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	고대 및 삼국~일제강점기	유교(역사 기록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근현대	민주화운동(역사 기록물)
	전쟁기념관	전쟁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전쟁(역사 기록물)

지금까지 살펴 본 국가기관·대학·단체별 수집 범위 및 방법, 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 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등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의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주제와 시대별 수집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고대 및 삼국,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시기에 이르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대학은 왕실 및 정부 기록물, 유학, 남명학, 불교 관련 기록물 등 각 대학별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특화하여 수집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기록물이 주종을 이룬다. 단체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국학자료, 1948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의 전쟁 관련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둘째,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교환, 기타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 국가기관에서는 구입(영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방 문중기록물 수집 과정에서 장기기탁 방식의 기록물수집이 많이 이루어졌다. 대학이나 단체는 기증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하고 있는 조선조 왕실도서의 대부분을 조선총독부에서 이관 받았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불교 기록물은 고서의 기증이 많았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영남 지방의 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유교 관련 국학 자료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이밖에도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같이 문화재나 유물조사를 통한 발굴 기록물을 기증, 기탁의 형태로 수집한 경우도 있다.

셋째,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은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신문, 책판, 서화, 박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 기록물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 박물, 마이크로 자료의 비중이 높다. 마이크로자료가 많은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지에서 기록물을 수집한 결과이고, 박물이 많은 것은 전북대학교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등 박물관의 영향으로 보인다.

넷째, 대표적 기록물군은 각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는데, 국가기관은 고대 및 삼국사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대사 기록물, 왕실·문중 소장 문서, 일제강점기 기록물, 문집 및 국역 자료, 여성문제 관련 기록물 등으로 대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은 왕실·관부·사인문서, 경학·동아시아학 관련 기록물, 남명학 기록물, 불교 관련 기록물과 한국 관련 서양고서, 호남지역 관련 기록물 등 특정 주제나 지역과 관련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단체는 민간 소장 국학자료,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전쟁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형성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의 실태 분석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 중 국사편찬위원회만이 한국사 전반과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록물을 포괄하여 수집하고 있고, 나머지 6개의 국가기관, 7개의 대학 및 3개 단체는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주제와 시대를 제한하여 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수집 기록물의 주제는 왕실, 유학, 여성사, 인물, 불교,

독립운동사, 식민지시대사, 호남 지역사, 민주화운동, 전쟁사, 문집 및 번역 기록물, 한국 관련 외국어기록물 등으로 다양하고, 시대 범위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대 및 삼국, 고려와 근현대 기록물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주제와 시대별 역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특성화된 기록물군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핵심 대학들과 연계하여 역사 기록물의 주제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방법은 국사편찬위원회를 제외하면 각 기관들은 일관된 기록물 수집정책이 없고,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집계획을 세워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구입(영인)의 방법을 강화하였는데, 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방의 문중 기록물을 장기기탁 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없었다.

셋째, 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관된 왕실기록물만을 소장하고 기록물을 거의 수집하지 않았으며, 대학의 일부와 단체는 기증·기탁 형태의 수집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관별로 일관된 수집정책이 없이 관련된 사업에 제한하여 적극적인 수집 방법인 구입(영인), 기증,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체는 기증보다는 기탁 기록물이 많은데, 기탁은 일시적으로 기록물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록물의 소유자가 언제라도 요구하면 되찾아 갈 수 있어 기탁이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은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신문, 책판, 서화, 박물 등의 다양한 형태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 기록물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 마이크로자료, 박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록물은 고서, 고문서, 도서 형태의 기록이고, 이러한 형태의 기록물 비율이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V.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의 통합시스템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각 주관기관별 DB의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DB 구축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전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의 전체 기록물 목록 및 기본 서지사항, 소장처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본문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역사분야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⁴⁷⁾를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9년 ‘전산화 추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 기록물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발판을 삼고자 했으나, 당시 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소장 기록물 목록과 한국사연구회보, 비변사등록 등을 대상으로 한 색인 작업 등 기초 기록물의 목록과 연구현황을 구축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인터넷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997년 소장기록물 목록, 한국사 논저목록 등을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 정보화의 일환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

47) 역사분야 주요지식제공기관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관문 확충(통합 메타데이터 DB 구축을 통한 연계, 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개선, 한적자료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 영문 웹페이지 개발), 전문정보센터 기술 지원, 역사분야 정보화 표준화 선도,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적 콘텐츠 개발, 역사 기록물 정보화 사업의 국제협력강화를 담당하였다.

작되었다.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사 기초원전기록물, 한국근현대잡지기록물, 한국근현대신문기록물 등 국가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정보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오다가, 2005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화 작업’과 한국사연구회보 웹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다중분류 서비스(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수집 소장처별 분류 서비스) 등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록물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URL(<http://db.history.go.kr>)로 분리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도록 하였다.⁴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보다 편리한 역사 기록물 통합검색을 위해 통합디렉토리 서비스와 편년자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디렉토리 서비스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연계된 전문정보센터의 기록물 전체에 대한 통합분류체계인데, 3단계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기록물 형태에 따라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 고전 국역서, 연구기록물, 목록·해제, 인물, 지도, 사전, 연표, 멀티미디어 기록물, 유물·유적의 1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분류는 연계되는 기록물의 구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맞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년자료 서비스는 편년체 자료만 따로 모아 날짜별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을 태조부터 순종까지, 근현대신문자료를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통합시스템에서는 부분적으로 주관기관간의 관련 데이터 제공 및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DB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이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⁴⁹⁾

48)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사 DB 소개’ <<http://db.history.go.kr/front/intro/introFrameSet.jsp>> cited 2009. 10. 9.

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DB 구축 현황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을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다. 이를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서지정보 7,345건, 텍스트 396,845건, 이미지 564,276면으로 방대한 양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구축한 기록물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역사 기록물로, 이를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및 삼국 기록물로는 한국고대사료집성과 중국정사조선전 등이 있고, 조선시대 기록물은 각사등록, 비변사등록, 국역비변사등록, 고종시대사가 있으며, 일제강점기 기록물은 국내외항일운동문서, 한국독립운동사기록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직원록자료, 중추원조사자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친일과 관련문헌, 일제사회사상운동기록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 대마도증가문서자료집이 있다. 근현대 기록물은 한국근현대인물기록물, 한국근현대잡지기록물, 한국근현대신문기록물, 근현대회사조합기록물, 반민특위조사기록, 이승만서한철,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문서, 휴전회담 회의록,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 문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근대한일외교기록물, 동학농민혁명 일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분야사별 연표(주제별연표)와 한국사료총서, 사진·유리·필름 기록물, 대한민국사, 한국사연구회보, 한국고지도목록, 한국근대지도기록물 등도 디지털화하였다.

2. 주관기관별 DB 구축

주관기관별 DB 구축은 DB 구축 범위와 DB에 수록된 기록물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B 구축 범위는 수집 범위와 동일하게 주제와 시대별로 분류하였는데, 주제는 한국고대사료, 한국역대인물, 여성사, 경학, 남명

49) 강순애. 2007.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書誌學研究』, p. 33.

학, 민주화운동, 전쟁사 등으로 나누었고, 시대는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B 수록 기록물 유형은 원문정보(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구축 현황을 정리하였다.

1) DB 구축 범위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개의 DB를 구축하였고, 이 두 기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은 각각 1개의 DB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별 DB 구축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DB’, ‘한국고대사료집성 DB’를 구축하였다.⁵⁰⁾ ‘비변사등록 DB’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시대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12대에 걸친 276년간의 기록인 273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에 구축한 ‘한국고대사료집성 DB’는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한국고대금석문(1~3),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원문·역주),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I~III)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9년, 2001~2007년에 ‘한국고전종합 DB’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고전번역서, 국고문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국학원전(고려도경 외 14종), 경서성독 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는 1999년, 2001~2007년에 걸쳐 왕실도서관 장서각에서 소장해오던 궁중

50)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비변사등록 DB’, ‘한국고대사료집성 DB’를 구축하였으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앞서 정리한 바 있으므로 주관기관별 DB구축에서는 ‘비변사등록 DB’와 ‘한국고대사료집성 DB’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 역사 기록물 및 고문서 기록물, 조선시대 실생활 관문서, 유명가문의 고서를 비롯하여 민요, 설화와 민간에서 편찬한 역사 기록물, 족보, 음성 기록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은 2005년, 2006년, 2008년에 조선시대의 주요한 인물 15,500명과 대표적 관직 1,000개, 국내의 주요 성씨 600개에서 배출된 인물,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 약 9만 9천여 명에 대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1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DB는 한국 여성 관련 자료집(고대편~근대편)을 중심으로 하여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의 여성 관련 사료와 주요 문헌기록물 등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훈전자사료관’을 2004~2005년에 구축하였는데, 이는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 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 사료, 포상관련자료, 국내외 폭도편책 및 판결문 사료, 독립운동가 증언 녹취록, 공훈록 참여자 명부, 미포상 기록부 등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을 2000~2002년, 2004~2006년에 구축하였는데, 이 DB는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을 2007년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축하였는데, 이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조선총독부관보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의 시대별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표 7-1> 국가기관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DB			v		
		한국고대사료집성 DB	v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v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v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v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v	v	v	v	v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v	v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v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 관보시스템				v	
계			2	2	5	4	2

<표 7-1>을 토대로 하여 국가기관이 구축한 DB명과 시대별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고대사자료와 비변사등록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사에 관한 기록물을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 DB로 구축하였고,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문집 및 역사(번역), 장서각 소장 기록물 및 한국역대인물에 대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고,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 관련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관보를 디지털화하였다.

둘째, 시대별 범위를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 조선 5개, 일제강점기 4개, 근현대 2개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주로 디지털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

대학은 각 주관기관별로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여, 총 7개의 DB를 구축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1999년부터 2001~2007년에 걸쳐 조선시대부터 근대 정부의 문서 및 고지도, 왕실자료, 내각일력, 조선시대 생활상 기록물, 사회사 기록물, 근대정부 기록류 및 고도서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축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한국경학자료집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2004~2005년에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경상대학교 문천각 소장의 고서 2만여 권과 남명학연구소 소장의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 교유인물들의 고문헌, 경상우도 지역의 문집류, 기록류, 고문서류, 책판류 등의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에서는 2005~2006년에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명지대-LG연암문고’ 소장기록물 중에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발간된 한국 관련 서양고서 총 482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06~2007년에 ‘호남기록문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DB는 초기 구축단계였던 2006년에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주관기관이 되고 원광대학교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세덕각 등이 참여하여 전북 지역 고문서 1만여 점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전라남도에서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남원향토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7,500여 점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기록물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진 전라도 지역 고문서 기록물, 호적, 소송문서, 교령류, 첩, 관, 통보류, 관보 등이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2006년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DB는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의 圓測에서부터 근대의 諲謹에 이르기까지 고승의 저서들을 14책으로 집대성한 것이며, 한글대장경은 동국역경원에서 1964년부터 2001년까지 편찬하여 318권으로 완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별로 구축된 기록물의 시대별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7-2>과 같다.

<표 7-2> 대학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v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v	v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v	v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v	v	
계			2	2	7	5	3

위의 <표 7-2>에서 나타난 대학이 구축한 DB명과 시기별 범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DB로 구축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각각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규

장각 소장기록물, 한국 관련 서양고서에 대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경학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고,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조선시대 남명학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호남 지역사 관련 기록물을 DB화하였다.

둘째, 각 DB 구축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 조선 7개, 일제강점기 5개, 근현대 3개로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단체

단체는 총 3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학진흥원은 1999~2000년, 2002년, 2004~2007년에 ‘유교넷’을 구축하였는데, 이 DB는 경상북도 안동유교문화권에 소장되어 있는 약 40여만 권으로 추정되는 고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4~2005년에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DB는 1948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및 원문 DB, 1948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구술, 시청각, 사진, 물건류, 녹화기록물 등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에서는 2004년에 소장하고 있는 전쟁 관련 집필 정보, 한국전 및 월남전 호국인물 공훈록에 대한 집필, 주요 전투 관련 집필, 참전국 활동사진, 전작지, 기념비 집필 텍스트 및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였다.

단체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 구축 기록물의 시대를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7-3>과 같다.

<표 7-3> 단체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v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v	v	v	v	v
계			1	1	2	1	2

단체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 구축 기록물의 시대별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시대 기록물 중 유교와 관련된 기록물을 구축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근현대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 전쟁기념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 전쟁 관련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다.

둘째, DB 구축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1개, 고려 1개, 조선 2개, 일제강점기 1개, 근현대 1개로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DB 수록 기록물 형태 및 규모

(1)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DB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DB’에는 텍스트 90,929건을 구축하였고, ‘한국고대사자료집성 DB’는 서지정보 3000건, 텍스트 8,210,000자, 이미지 58,409건을 구축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서지정보 650,407건, 텍스트 21,262,079건, 이미지 58,409건, 음성기록물 1,875건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지정보는 14,150건, 텍스트 10,307,800자, 이미지 51,000건, 음성기록물 72,000분, 음성과 텍스트가 연동되는 형태는 50,000분 분량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은 주요인물에 대한 기록물로 서지정보 2,640건, 텍스트 89,200건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을 서지정보 30건, 텍스트 8,131건, 이미지 55,322건, 음성기록물 2,590건, 동영상 1,570건을 구축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은 서지정보 261,761건, 텍스트 317,204건, 이미지 48,153건을 디지털화하였고, 독립기념관에서 구축한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은 텍스트 2,794,593건, 이미지 1,013,376건, 음성기록물 13,560건, 동영상 9,300건을 구축하였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에 텍스트 8,220,796자, 이미지 51,923건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디지털화 실태 및 구축 DB 조사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은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DB를 구축하였는데, 서지정보는 6개, 텍스트는 9개, 이미지는 7개,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4개 DB에서 변환하였다.

둘째, 한국고전번역원은 서지정보와 텍스트를 가장 많이 디지털화하였으며, 독립기념관은 이미지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다량 구축하였다.

셋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는 목록 서지기술이 부정확하고, 본문 텍스트에 입력된 해당 작품의 장르 및 필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었으며, 원문 입력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⁵¹⁾

(2) 대학

각 대학의 DB 구축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1) 강순애. 앞의 논문, 2007. p.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서지정보 6,850건, 텍스트 50,525,500건, 이미지 1,031,824건 디지털화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은 서지정보 45,277건, 텍스트 7,766,756건, 이미지 66,528건을 구축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 구축한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은 서지정보 231건, 텍스트 101,250건, 이미지 290,840건을 구축하였으며,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상으로 서지정보 610건, 텍스트 366,057건, 이미지 91,514면을 구축하였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호남기록문화시스템’에서는 호남지역 고문서(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를 서지정보 41,024건, 텍스트 1,636,152자, 이미지 20,549건, 2D플래시 3,303건을 디지털화하였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서지정보 20,830건, 텍스트 10,033,592자, 이미지 17,496건을 디지털화하였다.

대학의 DB구축 현황을 종합하고, 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는데, 서지정보를 구축한 기관은 7개, 텍스트는 기관은 7개, 이미지는 7개,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1개 기관에서 구축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장 많이 구축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서지정보를 다량 구축하였으며,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유일하게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구축하였다.

셋째,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남명학 고문헌시스템’은 한자 입력의 오류와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관련 문헌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구축된 것은 해당 기관의 DB로 연계하여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닌 메인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⁵²⁾

52) 강순애. 앞의 논문, 2007. p. 35.

(3) 단체

단체의 구체적인 DB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넷’에서는 서지정보 10,092,719건, 텍스트 4,390,180건, 이미지 390,418건, 동영상 708건, 파노라마 371건, 2D 플래쉬 10건, 3D 파노라마 및 애니메이션을 843건 구축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은 서지정보 180,234건, 텍스트 1,772,765건을 구축하였으며, 전쟁기념관에서는 텍스트 48,900건, 이미지 3,630건을 디지털화하였다.

단체의 DB구축 현황을 종합하고 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는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DB를 구축하였는데, 서지정보는 2개 기관, 텍스트는 3개 기관, 이미지는 3개 기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1개 기관이 변환하였다.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 3D 파노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구축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은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훨씬 많은 양으로 구축하였다.

셋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유교넷’은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면서 구두점을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⁵³⁾.

이와 같이 역사분야에서 구축된 DB 현황만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대학, 단체로 분류하여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53) 강순애. 앞의 논문, 2007. p. 30.

<표 9> 역사 기록물 구축 DB명과 수록 데이터 유형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문자정보			음성 및 동영상 정보	계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DB	.	90,929	.	.	90,929
		한국고대사료집성DB	3000	8,210,000(자)	5,500	.	8,500(건) 8,210,000(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650,407	21,262,079	58,409	1,875	21,972,77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4,150	10,307,800(자)	51,000	122,000(분)	65,150(건) 10,307,800(자) 122,000(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2,640	89,200	.	.	91,8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30	8,131	55,322	4,160	67,643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261,761	317,204	48,153	.	627,1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2,794,593	1,013,376	22,860	3,830,82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관보	.	8,220,796(자)	51,923	.	51,923(건) 8,220,796(자)
	소계		931,988	24,562,136(건) 26,738,596(자)	1,283,683	28,895(건) 122,000(분)	26,806,702(건) 26,738,596(자) 122,000(분)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850	50,525,500	1,031,824	.	51,564,17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45,277	7,766,756	66,528	.	7,878,561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231	101,250	290,840	.	392,321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610	366,057	91,514	.	458,181
	전북대학교 박물관/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41,024	1,636,152(자)	20,549	3,303	64,876(건) 1,636,152(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 종합시스템	20,830	10,033,592(자)	17,496	.	38,326(건) 10,033,592(자)
	소계		114,822	58,759,563(건) 11,669,744(자)	1,518,751	3,303	60,396,439(건) 11,669,744(자)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10,092,719	4,390,180	390,418	1,932	10,100,0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180,234	1,772,765	.	.	1,952,999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	48,900	3,630	.	52,530
	소계		10,272,953	6,111,845	394,048	1,932	16,780,778
총계			11,319,763	89,433,544(건) 38,408,340(자)	3,196,482	34,130(건) 122,000(분)	103,983,919(건) 38,408,340(자) 122,000(분)

위의 <표 9>를 분석하여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기록물의 문자정보는 서지정보, 텍스트⁵⁴⁾, 이미지로 구축되었는데, 서지정보는 목록, 색인, 해제 등이다. 문자정보 외에 구축된 형태는 음성 및 동영상 정보이다. 서지정보는 14개 DB, 텍스트는 18개 DB, 이미지는 15개 DB이며,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구축한 DB는 6개에 불과하다.

둘째, 서지정보를 가장 많이 구축한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다. 텍스트는 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다. 이미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으며,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독립기념관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다.

셋째, 문자정보 중 텍스트 DB가 가장 많고 이미지 DB가 적은 것은, 이미지 디지털화를 귀중기록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양이 극히 미약한데, 이는 지식정보자원관리 다음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역사 기록물의 DB 구축 현황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여러 역사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체 기록물의 목록과 서지사항, 원문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다가, 2005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주관기관별 DB 구축 범위를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고대사집성자료와 비변사등록을 DB화하였으며, 한

54) 텍스트 구축 현황은 ‘건’과 ‘자’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고전번역원은 ‘한국고전종합DB’를 구축하여 고전번역서와 국고문헌, 한국문집총간 등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시대 장서각 소장 기록물을 DB화하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밖에 각 국가기관은 기관의 고유 성격에 따라 특성화된 수집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였다. 대학은 7개 대학이 각각 하나의 DB를 구축하였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지털화하여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와 같이 각 대학들은 수집기록물의 주제에 따라 한국 관련 서양고서, 경학 자료, 남명학 자료, 규장각 자료, 호남 지역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단체는 유교, 민주화운동, 전쟁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셋째, 주관기관별 DB 구축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DB는 역사 기록물을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등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디지털화하여 구축되었다. 국가기관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대학과 단체에 비해 다량 구축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변사등록 DB’는 문자 정보 중 텍스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대학은 문자 정보를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를 구축하였는데 그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 한국국학진흥원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에 타 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노라마, 2D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분야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수집 기록물의 가치나 활용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축되었고, 전문적인 기록물을 연구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DB 이용자의 정보수요가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역사분야는 기록물의 양이 방대한 데 비하여 일부 국가기관, 대학 및 단체만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여러 기관의 핵심 기록물에

대한 집중적인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역사 기록물 DB 구축은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는데, 문자정보 중 텍스트 DB가 가장 많고, 이미지는 귀중 기록물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져서 구축된 양이 적으며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극히 일부만 구축되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구축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 전개와 시기별 흐름, 수집 활동 및 디지털화 실태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1.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자원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공익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생산비용과 가치를 지닌 경제적인 자원으로, 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분야를 막론하고 업무를 주도하는 전담기관이 국가적인 책임 아래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정책 개발의 지원, 자원의 활용을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 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과제 심사 및 지원, 계약 체결, 과제수행의 관리, 감리 및 결과평가·홍보,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지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관리지침 재·개정,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을 담당한다.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은 제1단계(2000-2004)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전산원이었고, 제2단계(2005-2007)와 제3단계(2008-2009)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었다. 한국전산원이 주도한 지식정보관리의 역사분야는 1998-1999년 정보화사업과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연계과정에서 기존 정보화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의 구체적인 정의 및 범주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산

하로 이관되었고 예산도 축소되는 변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단계별 업무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일차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 시행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 조정과 주요 기관 간의 연계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서 역사분야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은 200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로 지정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관문 확충(통합 메타데이터 DB 구축을 통한 연계, 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개선, 한적자료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 영문 웹페이지 개발), 전문정보센터 기술 지원, 역사분야 정보화 표준화 선도,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적 콘텐츠 개발, 역사 기록물 정보화의 국제협력강화를 담당하고 있다. 역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단독 주관기관이 되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 추진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긴 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2005년과 2006년의 단기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도중 하차하였고, 전국의 대학 중 7개 대학만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참여하여, 핵심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들이 배제되었으며, 단체도 3개 기관 이외에는 증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주요 기관간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는 2007년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일차 마무리된 이

후 2008년부터는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자체의 비변사등록과 한국고대자료집성의 DB를 구축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존에 해오던 관문 확충과 주관기관들의 범위를 확장하고 업무의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사 사료의 도서관 간 정보화 협력망 및 한국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단기참여자가 아닌 지속적인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여러 대학의 구심점이 되어 대학도서관간의 협력망을 구성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7개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으나 2005년에 중단된 ‘대학 소장 역사 자료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간의 기반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19개 기관 중 지식정보자원관사업의 역사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개 대학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기록물군을 소장하고 있는 14개 대학⁵⁵⁾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인 유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사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3곳에 불과한데, 특성화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찾아내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55)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상허기념 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도서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강화와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 정책의 수립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이면서 주관기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기관, 대학교 단체들이 일관된 수집정책을 수립하려면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각 기관이 회원기관이 되도록 하며, 회원기관에는 일관된 표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법률의 시행령(2008.2.29 개정)에 의하면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구성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의회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군사편찬연구소,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각 기관의 국내외 사료수집 현황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협의를 통해 해외 사료 수집의 중복 구축 방지에 비중을 두어 일을 진행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이 협의회에 역사분야의 주관기관들을 회원기관으로 참여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정책을 수립하게 된다면, 참여기관간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특성화된 기록물군을 잘 형성하고 있는 핵심대학들과 연계하여 보유 기록물의 주제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56) 강순애. 2008.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p. 56.

4.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로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여러 역사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체 기록물의 목록과 서지사항,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주관기관들이 기관별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것이어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는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구축되었는데, 문자정보 중 서지정보는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구축된 텍스트 정보는 일부 DB에서 원문입력의 오류가 지적되었다. 이미지는 귀중기록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구축된 양이 텍스트에 비해 적다. 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극히 일부만 구축되어 통합구축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필요하다.

둘째,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기록물의 양이 방대한 데 비하여 일부 정부기관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서 중요 국가기관, 대학 및 단체의 핵심 기록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B 구축에 있어서도 참여한 주관기관의 보유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통합적인 디지털화보다는 개별 기관 중심의 단편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기관별로 성과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역사분야는 각 기관의 기록물을 가치나 활용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디지털화하였고, 전문적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실제적인 DB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기관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DB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이차적인 DB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비전이 필요하다.

VII. 결론

본 논문은 국가 차원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분석하여 시기별 흐름을 개관하고, 국가기관·대학·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시기별 흐름에 따라 4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1998~1999년)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고, 제2기(2000~2003년)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된 시기이다. 제3기(2004~2007년)는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 가장 많은 주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4기(2008~2009년)는 예산 규모의 축소로 인해 업무의 규모와 참여한 주관기관의 수가 감소한 시기이다.

2) 국가기관·대학·단체별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 실태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은 고유의 목적에 따라 주제와 시대를 특화하여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시대는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까지이며, 주제는 시대사, 왕실 및 정부, 여성, 독립운동사, 전쟁, 유학, 남명학, 국학, 불교, 민주화운동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였다.

둘째,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 영인), 기증, 기탁, 교환 등으로, 국가기관에서는 구입(영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이나 단체는 기증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한 경우가 많다. 수집 시 국사편찬위원회를 제외한 각 기관들은 일관된 수집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수집 계획을 세워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셋째, 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은 고서, 고문서, 도서,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자료, 신문, 책판, 서화, 박물관 등으로 나누었는데, 역사 기록물

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 박물 기록물의 비중이 높다. 박물이 많은 것은 박물관 등의 영향으로 보이고, 마이크로자료의 비중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기록물을 영인하면서 높아졌다.

넷째, 각 기관의 대표적 기록물군은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다. 국가기관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대사 기록물, 왕실·문종 소장 문서, 일제강점기 기록물, 문집 및 국역 기록물, 여성 문제 관련 기록물 등으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학은 왕실·관부·사인 문서, 경학·동아시아학, 남명학, 불교 관련 기록물과 한국 관련 서양고서, 호남 지역 기록물 등으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단체는 민간 소장 국학자료와 민주화운동, 전쟁 관련 기록물 등이 대표적이다.

3) 국가기관·대학·단체별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에서 2007년까지 구축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목록과 서지사항, 원문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고대사집성자료’와 ‘비변사등록’을 DB화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은 ‘한국고전종합DB’를 구축하여 고전번역서와 국고문헌, 한국문집총간 등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장서각 소장 기록물을 DB화하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학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지털화하여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을 구축한 예와 같이, 7개 대학이 주제에 따라 한국 관련 서양고서, 경학, 불교, 남명학, 규장각, 호남 지역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각각 하나의 DB를 구축하였다. 단체는 유교, 민주화운동, 전쟁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셋째, 각각의 DB에서는 역사 기록물을 문자정보 및 음성·동영상 정보로 디지털화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변사등록 DB’는 텍스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고, 한국국학진흥원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에 파노라마, 2D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다.

4) 역사분야 국가지식정보관리의 수집과 디지털화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는 기존 업무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의 정의 및 범주가 설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진행된 업무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하여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 역사분야의 주관기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핵심 대학, 역사 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단체 등은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주관기관의 부족은 주요지식 제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 조정 및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주요 단체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각 기관은 일관된 수집정책을 정립하지 못하고, 관련 사업 시행시 일시적인 정책을 통해 수집을 진행하여, 유사 중복 기록물 수집이나 방대한 역사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을 ‘사료수집보존협의회’에 회원기관으로 포함하여 일관된 수집을 위한 표준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기관별 DB는 텍스트 원문 입력의 오류와 이미지 및 음성·동영상 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것과 보유 기록물의 가치 및 활용도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DB 구축한 것이 문제점으로 밝혀졌는데, 각 DB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민수. 2004.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강순애. 2008.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활용-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39-60.
- _____. 2007.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書誌學研究』, 38: 5-46.
- _____. 2006.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34: 5-35.
- _____. 2005.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3. 한국 고문서의 정리현황과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6: 51-83.
- 곽동철. 2004.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情報管理學會誌』, 21(1): 119-144.
- _____. 2003.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관리에 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4(1): 81-111.
-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 지침』.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5.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소개』.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5.5.3. 『2005년도 제2차 한국역사분야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워크샵(Section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김남일. 2009. 고문서 메타데이터 표준화 현황과 과제-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서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4: 107-147.

- 김대길. 2007.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문서 조사·수집의 성과와 과제. 『古文書研究』, 31: 15-47.
- 김미향. 2004. 『지방 역사 자료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김정민. 2004.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 측면의 문제점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현곤. 2000. 국가지식관리기구의 필요성과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디지털도서관』, 17: 59-68.
- 박찬승. 1997. 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역사비평』, 36: 1-9
- 서은경, 김성혁, 오경목. 2000.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17(3): 213-234.
-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오경주, 정원식. 2006.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01-333.
- 안상민. 2007. 『고문서 웹서비스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 오삼균. 2005.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맨틱웹 설계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43-67.
- 윤소영. 2009. 수집사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1): 371-387.
- 이건식. 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35-352.
- 이경용. 2002. 한말 기록관리제도-공문서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161-224.
- 이남희. 2006.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하여. 『오늘의 동양사상』, 1: 263-368.
- _____. 2003. 인문학과 지식정보화: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움』, 19-27.

- 이상민. 2000. 역사기록물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 정보화. 『기록학연구』, 1: 23-76.
- 이준호. 2004.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11: 175-200.
-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 정보통신부. 2000.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 정지연. 2007. 근현대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8: 91-121.
- 조재인. 2005. 지식정보자원 보존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1-20.
- 조혜경. 2007.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컬렉션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차용진. 2001.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적 DB 구축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1: 1-28.
- 최희진. 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전산원. 2000.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 _____. 2001.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 [서울]: 한국전산원.
- _____. 2002.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식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 _____. 2005. 『2005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_____. 2005. 『최종연구개발 결과보고서-국가지식정보자원 표준
분류체계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http://www.e-coreana.or.kr>>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http://db.kdemocracy.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유교넷 <<http://www.ugyo.net>>
전쟁기념관 <<http://www.warmemo.or.kr/data/data.jsp>>
조선총독부관보 <<http://gb.nl.go.kr>>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한국불교문화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http://www.womenshistory.re.kr:7070>>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부록 1>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

	주관기관	수집 범위	수집 방법	보유 기록물 현황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자료집성, 각종고서, 고문서, 해외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찰, 향교, 서원, 문중, 개인 소장자료	방문수집, 사료조사위원회와의 연계, 한국사 관련 자료의 납본, 사업 있을 때 수집사업방침, 직원 직접 출장 자체 수집, 지방에 거주하는 지방자료조사위원이나 연구자에게 지방사료 수집비를 지원하여 수집하는 방식, 한국사 관련 자료를 납본 및 자료교환, 증언채록	귀중자료, 고서, 대마도 종가문서, 일반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필름, 사진류, 금석문류, 서화류, 녹음·녹화물 등
	한국고전번역원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국학원전, 경서낭독 등의 번역, 원전, 해제, 성독 등 작업 결과물	고전번역사업, 고전자료센터사업 등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국학원전, 경서낭독 등의 번역, 원전, 해제, 성독 작업 등을 통해 결과물 소장)	한국문집총간(간행물, 편목색인, 색인, 해제), 한국문집 교감/표점,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일반문집, 경서성독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근현대사관련자료, 고문서, 고서, 신한동사 경성지부 관련자료, 귀환자료, 민주화자료, 동학농민전쟁자료, 대한제국기의병진평관계자료	각 사업에 따라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문중(종가)이나 기존의 자료수집가를 방문하여 이들의 자료를 빌려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고문헌 기증기탁제도	고문서, 고서, 마이크로필름, 구술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관계 자료, 여성정책사 및 교육사 자료, 여성 단체 활동사 자료	구입, 기증, 기탁	도서, 시청각자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관련자료 등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해외 한국독립운동사 사료, 의병 관련 자료, 독립유공자 증언 녹취록	독립유공자를 관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기록 수집,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해 현지에서 사료를 수집, 분과위원반 3팀, 자료발굴·정리반 2팀, 현장조사반	고서, 고문서, 신문
	독립기념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만들어 한국독립운동사, 민족운동사, 국난극복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총 7명의 연구원 중 국내외사료 조사와 수집을 담당하는 연구원 1명 배치하고 있음	고서, 고문서, 시청각자료, 서화, 박물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편찬	현지수집	고문서, 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신문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도서, 도서, 고문서(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기타 봉신불문서, 결사문서 등)	1910년 일제가 전국적으로 고문서를 수집함, 해방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고문서를 구입하여 일부 수집한 것 있으나 소량에 불과함	고문서, 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결사문서, 봉신불문서, 외교문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경각	경서류, 국문학 관계자료, 고문서 등 성균관 관련 자료, 동아시아학 자료, 한국 경학자료	‘국학동양학 연구자료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서류, 국문학 관계자료, 고문서 등 성균관 관련 자료 집중 구입, 성현 이병희 문고, 중재 김항 문고 등 개인 기증 한적 자료 문고 14개 있음	한적,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서적 및 일반 자료
	경상대학교 문친각	고서, 고문서. 중국서로는 사고전서 및 속수사고전서 등 동양학 관련 도서, 국내서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한국역대문집총서 등 국학 관련도서, 경남 지역 유학자의 문집류, 경서류, 고문서류, 목활자, 현판, 양장 영인본도서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 남명 조식과 교유한 인물 관련 고문헌	경남 전역에 산재한 개인 및 문중소장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기증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경남지역 개인 및 문중에서 기증한 고서 및 고문서	남명학 및 지역학 고서, 고문서, 책판, 고활자, 고서 영인본, 관련 한적 도서개인 및 문중소장 고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 관련 서양고서 등	학교법인 명지학원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의 과물을 기반으로 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관련 문헌들을 발굴·수집 성과를 '명지대-LG연암문고'에 소장	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고문서, 부안 김씨, 전주 유씨, 나주 임씨, 남원 양씨 등 전라도 지역 거주 가문들 소장 고문서	문화재지표조사, 동산문화재조사, 유물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고문서 수집, 고문서 발굴과 동시에 기증·기탁형식으로 소장	고문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학, 인도철학, 종교학 및 불교 관련학 전공	구입, 기증	단행본(동양서, 서양서), 학위논문, 고서, 정기간행물(국내, 국외)
	순천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유물, 고(故) 강운 최승효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총 6,000점의 문화재, 주로 조선과 근대의 각종 서화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고문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	1987년 고고·인류·역사·민속·예술·자연과학 및 향토문화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해 전라남도 동부지역 최초의 박물관으로 설립	금속, 도토, 옥석, 민속, 서화, 골각, 기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민간 소장 국학자료, 기탁된 국학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목록집으로 간행, 학술적가치가 높은 것은 자료집으로 간행, 고서, 고문서, 목판	문중 및 개인소장자로부터 국학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하는 ‘위탁 관리방식’에 의해 고문헌 수집함, 주로 영남지방의 서원과 양반 가문에서 기탁 받은 것.	고문서, 고서, 목판, 기타,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시도유명문화재, 문화재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건사료(민주화운동 단체의 자체 생산 문서, 성명서, 회의록, 보고서, 팸플릿, 일기, 메모 등), 박물관사료(플래카드, 포스터, 메달, 의상, 걸개그림, 배지, 그림 등), 시청각자료(오디오,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필름 등), 구술사료(민주화운동관련 인사 및 사건 관련 구술), 도서(민주주의,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및 정기간행물 등)	기증, 기탁, 현지수집	도서, 시청각자료
	전쟁기념관	호국의 인물, 시대별 전쟁 관련 유물, 6·25전쟁 자료, 항공기·전차·화포 등	구입, 기증, 기탁	박물관

<부록 2>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주관기관	구축 DB명	DB구축범위	수록 기록물 형태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DB	비변사등록	텍스트
		한국고대사료집성DB	중국정사조선전/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 한국고대사연표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총서DB(고려사절요, 연려실기술, 동문선, 대동야승, 홍제전서, 고봉집 등) / 편년번역서DB(국역조선왕조실록, 국역승정원일기, 국역일성록 등) / 한국문집총간DB(계원필경집, 퇴계집, 율곡전서, 송자대전 등) / 국학원전DB(고려도경, 연행록선집,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 경서성독DB(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 동영상강의DB(논어, 고문진보)	서지정보, 텍스트(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이미지(PDF), 음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궁중문화 역사 기록물 및 고문서 자료DB 구축 / 조선시대 궁중의례, 군사행도, 궁중 복식 자료 등 / 민간에서 편찬한 역사 기록물, 조선시대 실생활 관문서(재산상속, 계약문서, 법적소송문서, 관직임명장 등), 족보 등 / 장서각 소장 유명가문의 고서 및 민요, 설화 등의 음성자료	서지정보(탈초, 해제), 텍스트, 이미지, 음성(번환 및 편집), 음성 텍스트 연동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 역사상 주요한 인물 15,500명에 대한 상세한 사전식 설명자료 /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직 1,0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 국내의 주요 성씨 6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배출된 인물에 대한 자료 /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에 대한 신상정보	서지정보, 텍스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한국여성관계 자료, 여성정책사 및 교육사 자료를 DB로 구축 / 여성관련 기사자료(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영인본 잡지 이미지), 지위, 생활, 교육, 운동관련 도서 및 논문, 신화 및 역사대표 여성자료, 여성기술사(주요인물 음성 및 동영상 정보, 사진 등) /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여성 관련자료, 개화기 이후 여성단체 활동사, 여성교육 교재, 여성 정책자료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록철, 포상관련자료 / 독립운동사료집, 국내외 폭도편력 및 판결문 사료, 독립운동가 증언 녹취록, 공훈록 참여자 명부, 미포상 기록부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7만여 점 소장자료, 소장도서, 원문정보, 독립운동가, 이미지 및 마이크로필름, 지도 이미지, 3D/동영상, 사적지, 시·어록비, 전시관 자료(영/일/중문) 등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인명 단체명 등의 색인정보 / 1910~1945년까지 발간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주요 기관·단체명 및 인명 등 색인	텍스트, 이미지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근대정부의 문서 및 고지도 / 일성록, 의종대청시일록, 왕실자료(왕실의 연원, 궁중의식 등), 내가일력, 조선시대 생활상 자료, 사회사 자료, 근대정부 기록류, 고도서 서지정보 등 원문 및 이미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원전 자료, 고지도(여지도, 군현지도, 대동여지도) 등	서지정보(색인, 해제), 텍스트, 이미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경학자료 / 1988~99년간 발굴하고 수집한 한국경학(서경, 시경, 역경, 논어 등 34권의 책)	서지정보(해제), 텍스트, 이미지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남명학 관련 고문헌 / 남명학 관련 문집, 기록류, 고서 원문 이미지, 고서 등 소장자료 / 남명 조식(1501~1572)의 학파와 관련된 고문헌 / 경상도 지역의 업선된 유학자(3,000여명)의 인물관련 자료, 문집, 기록류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 서양 고서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전북대학교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전라도 지역 호적, 소송문서, 교령류, 첩, 관, 통보류, 관보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 종합시스템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 1-3책, 고려시대편 4-6책, 조선시대편 7-10책, 보유편 11-14책) / 한글대장경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경상북도 안동유교문화권에 산재 분포 소장되고 있는 약 40여만 권으로 추정되는 古典籍의 해제정보 및 원문 이미지와 유무형의 유교문화 자료 / 영남 유교문화권에 분포된 학문적 가치가 높고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고전적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지, 해제, 목차	서지정보(해제, 목차, 표점 및 탈초, XML태깅),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3D파노라마, 동영상, 3D애니메이션, 2D 플래쉬, 3D오브젝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 1948년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 구술, 시청각, 사진, 물건류, 녹화자료 등	서지정보(해제, 전거), 텍스트, 이미지(PDF)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소장자료 / 전쟁관련 집필 정보, 한국전 및 월남전 호국인물 공훈록, 주요 전투 집필, 참전국 활동 사진, 전작지 기념비 집필 등	텍스트, 이미지

ABSTRACT

A Study on Collecting and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Records in the National Level

Kang, Bo-Bae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for historical records has not been evaluated in terms of its performing scope by contents, nor has any comprehensive and specific analysis been conducted except piecemeal studies on its collecting, digitalization and system, respectively. This was attributable to difficulty in holistic analysis due to in-constant flow of policies including changes of dedicated institutions and lead institutions and temporary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of some institutions. Without holistic evaluation and resulting improvement, approaches to and use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and subsequent production of new knowledge information and data are unlikely to be put into practice. analysis

There upon this research conducted interview and survey of literature and homepage database on 17 lead institutions, have participated as host organizations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roject' in the Field of History from 1998 to 2009.

The thesis had an accurate grasp of problems and provided reform measures based on analyzing actual conditions of collecting and

digitalizing historical archives, and dividing the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of historical archives into four term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in this study:

1) Among the 4 terms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of historical records, the 3rd term was found most active.

2) Based on the analysis on current states of collecting in each national institution, university and organization, the following were found;

First, collected historical records are based on particular topics and eras following objectives of each institution. The eras include ancient times,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Chosu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modern times. The topics include history of times, women, independence movement, war, studies on Nammyeong, Korean studies and democratic movements. Topics are diverse across institutions.

Second, collecting methods include purchase(original and photographic facsimile), donation, deposit and exchange. In national institutions, purchase (photographic facsimile) is the most common method for collecting, while in colleges and organizations donation is predominant. Excep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ach institution has not established collecting policy consistently applicable, and developed independent plans for collecting when they have relevant works.

Third, records held by each institution include rare old books and documents, books, audio-visual data, micro data, newspapers, wooden blocks, paintings and writings and archival objects, etc.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records, old and rare books and documents and archival objects are predominant.

Fourth, each of institutions constituted the group of representative

records based on peculiar purposes. The group of national institutions mostly holds documents of Korean history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to modern times and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royal households and clans, women's issues, and the anthologies translated into Korean. Likewise the group of universities is possessed of data includes the Buddhism, the private seal of royal household and government official, old and rare Western books on Korea, Honam region, studies on Nammyeong, East Asia and Confucian classics. Other statements on democratic movements, war literature, Korean studies are possessed in a public organization.

3) Based on the analysis on current states of digitalization in national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s is done as follows:

First, as the integrated system in history field, 'Korean Historical On-line' provides an integrated search service on original text and bibliography of historical records.

Second, 7 national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9 DBs including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7 universities have implemented 7 DBs including 'Information for Korean Buddhist Culture' 3 organizations have built 3 DBs including 'Ugyo net'.

Third, each DB contains historical records digitalized in bibliography, text, image, voice and video informatio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s 'Bibyeonsa registry DB' offers text-only information, while the Kyujanggak Institute Korean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a great amount of text and images digitalized, and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s 'Ugyo net' has added voice and video images of information with panorama, 2D flash and animation.

4) For producing obvious improvement on collecting and digitalizing of historical records due to the national dimension, furthering roles of a dedicated institution, developing a long-term scheme, adjusting roles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providing knowledge, well-coordinating between each of major institutions, enhancing and formulating consistent collecting policies in each institution, evaluating and completing on the database outputs established in 'Korea Historical On-line' and in each of institution are required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llecting and digitalization of historical records.

